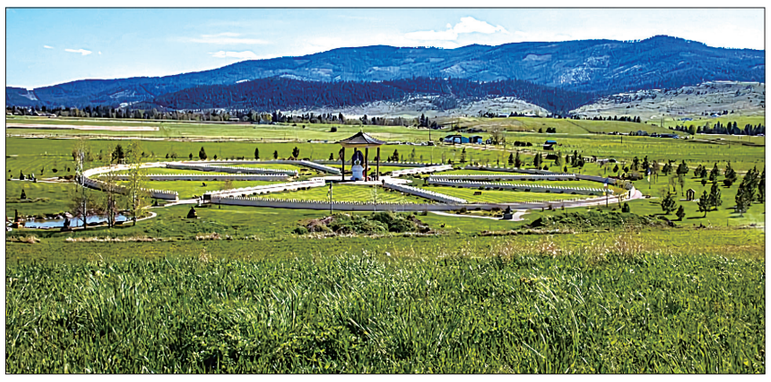
美 불교센터, 환경보호 위해 지역과 연대

토종 식물 천국 '천불 정원'
아스팔트 공장 개발 계획에
지역민과 비영리 단체 설립
반대 운동 · 법적 공방 나서

박영빈 객원기자

몬태나주 북서부 조코계곡에 소재한 불교센터 '에왐 상악링'은 센터가 소재한 계곡에 노천 자갈광산과 아스팔트 공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였다. 센터와 지역주민들은 현재 개발을 막고, 환경과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16일 국제 불교뉴스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불교계와 지역주민의 연대에 대해 보도했다.

에왐 상악링 센터는 티베트 불교를 수행하는 불교센터로, 2000년 설립됐다. 특히 이곳은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1000구의 불상을 법륜의 형태로 배치한 정원인 '천불의 정원'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정원엔 해당 지역의 토종 야생식물들을 중심으로 조경이 이루어져 지역 환경의 지속적인 보전을 알리는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산개발로 수행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천불의 정원' 전경.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센터를 설립한 고첸 툴쿠 린포체는 "천불의 정원은 오래전 나의 꿈에서 본 모습을 옮긴 것이다. 법륜의 형태로 불상을 봉안하고, 둘레에 8개 국어의 반야심경을 새겨 세계의 평화와 불법의 증장을 기원하는 장소"라고 센터와 정원을 소개했다.

한편 최근 이 곳에 노천 자갈광산과 아스팔트 공장에 대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해 한 고속도로 건설회사가 몬태나주 환경부에 20년간 자갈채굴 사용허가와 공장설립을 신청했다. 해당 회사는 광산 및 공장 시설은 플랫헤드 인디언 보호구역 내의 60 헥타르에 달하는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 환경부는 광산의 환경평가에 대한 공개 의견을 2월 24일까지 받을 것이라고 공시하고,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공개 피드백을 요청하는 웹페이지를 개설한 상태다.

이에 조코계곡의 지역주민 및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은 해당 개발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보호구역을 고향으로 하는 살리쉬족과 쿠테나이족 연합의 전 의장 샐리 파이안트는 "자연과 동물, 인간의 건강에 무모한 악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가 일시적인 불편이나 영향이 미미하단 이유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예"라며 개발계획을 비판했다. 파이안트는 "설립 예정부지에는 강으로 흘러드는 지하수층이 있다. 그리고 강은 우리 부족들이 오랜 시간 노력하여 복원한 멸종위기종 송어의 서식지로 연결된다"며 계획의 환경평가를 전면적으로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연대에 나선 에왐 상악링 센터는 "해당 예정지는 천불의 정원과 수행센터에서 불과 1km도 채 안되는 거리에 있다. 환경적 영향, 건설 및 대형 트럭의 출입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빛 공해, 도로 교통량 증가는 수행환경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노천 자갈광산은 정원에 자라는 토종식물들의 성장과 보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주 환경부는 이곳의 환경과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 적절한 고려없이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센터와 주민들은 '조코의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코의 친구들 측은 대중들에게 해당 계획의 문제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계획을 막기 위해선 법적공방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윈강석굴, 3D프린팅으로 1:1 재현

제3굴 아미타삼존상
순차적으로 재현진행

세계문화유산이자 중국 3대 석굴사원 중 하나인 윈강석굴이 3D프린팅으로 재현돼 화제다. 지난 2월 15일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현대과학의 기술로 원본과 동일하게 재현된 윈강석굴 제굴에 대해 보도했다.

윈강석굴은 산시성 다퉁에 위치한 불교 석굴사원으로 5세기 북위시대에 조영된 것이다. 동서 1km로 뻗은 절벽에 45개의 동굴과 5만 9000점 이상의 불상이 있으며 200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중 제3굴은 윈강석굴에서 가장 큰 동굴로 전실과 후실의 두 방으로 나뉘며 이중 후실의 벽에 수당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미타삼존상이 봉안돼 있다.

산둥성 칭다오에 소재한 '윈강석굴 미술관'은 3D 프린팅기술을 이용해 제3굴을 1:1비율로 재현해냈다. 본존인 아미타불의 높이는 9.93m. 불상 뿐만 아니라 탑 모양 조각이 새겨진 2개의 기둥,



3D프린팅 기술로 완벽하게 재현된 윈강석굴 제3굴의 모습. 사진출처=글로벌 타임즈

벽을 장식하는 벽화들까지 높이 17.9m, 폭 13.6m의 전체 동굴을 완벽하게 재현해 냈다. '글로벌 타임즈'는 "현재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이런 대규모 문화재를 복제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전하며 일일 최대 1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윈강석굴을 3D 프린팅으로 복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윈강석굴 연구소와 절강 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의 기술자와 연구원들은 더 작은 동굴인 윈강석굴 제12굴의 일부를 복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제3굴 복제 프로젝트 기획자인 왕샨샨은 "고대유물을 새롭게 되살려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의도"라고 전했다. 왕샨샨은 "3D 프린팅 팀의 지원을 받아 대형 불상들을 재현하는 데 엄청난 준비작업이 필요했다. 디지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약 10,000장의 초고화질 동굴사진을 촬영했고, 아미타삼존상만을 위해 개별적으로 842개의 모델이 프린팅 돼 조립됐다. 동굴 전체를 조립하는 데만 전문팀이 총동원되어 3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디지털 고고학전문가인 펑샤오콴은 "이번 프로젝트는 3D 프린팅기술이 대규모 문화유산을 복제하고,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0년 동굴의 복제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석굴사원 복제사업의 초점이 '보호 및 보관'에서 '문화 창조 및 가상 컬렉션'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지난 20년 윈강석굴을 시작으로 22년에는 둔황 막고굴의 장경동을 디지털로 복제 및 복원에 성공한 바 있다.

전시회 팀장인 닝보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유물복원이 단순 복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옛 문명과 문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의 작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완전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문화유산의 표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도쿄박물관, '쇼토쿠 태자 도해' 디지털로

훼손 쉬워 미공개작 다수 포함
터치로 미세 부분 확대도 가능



사진출처=트라이시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중요 문화재를 고해상도로 관람할 수 있다니 신기합니다. 화면을 터치해 작품 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도쿄국립박물관이 일본 불교 역사와 관련한 중요 예술 작품을 디지털로 전시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2월 19일 불교 매체 트라이시클(Tricycle) 보도에 따르면 도쿄국립박물관은 2월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2층 '호류지사(Horyuji Temple) 보물 갤러리'에서 불교 중요 문화재를 디지털 전시한다.

트라이시클은 "유리창이나 장벽 등 어떤 방해도 없이 관람객들이 불교 문화 유산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고화질로 복원된 불교 문화재의 디지털본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 대상은 도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호류지사 관련 중요 문화재로, 깨지거나 훼손되기 쉬워 대중에 전시되지 못했던 작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도쿄국립박물관은 관람객들이 직접 모니터를 터치해 작품의 미세한 부분까지 확대해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장비를 배치했다.

이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은 쇼토쿠 태자(574~622)의 도해이다. 쇼토쿠 태자는 백제의 혜총과 고구려의 혜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유교와 불교를 배워 일본에서 중흥시킨 인물이다.

해당 작품들은 쇼토쿠 태자 사망 약 450년 후인 1069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쇼토쿠 태자가 말을 타는 모습, 쇼토쿠 태자와 대중들의 모습 등이 화폭에 담겼다.

특히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작품도 눈에 띈다. 한복을 입은 강사가 일본 학생들에게 기가쿠(Gigaku)를 가르치고, 드럼을 든 연주자들과 이를 정자 아래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쇼토쿠 태자의 모습 등이 담겼다.

기가쿠는 612년에 백제의 미마지(味摩之)가 오나라에서 배워 일본에 전한 것이 시초이며, 나라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에 걸쳐 유행했다.

이밖에 고구려 승려 담징이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 그린 것으로 알려진 호류지사의 금당 벽화 2호와 6호 중 일부도 공개된다.

박정현 객원기자

유럽 작가, '소림 불교 문화'를 말하다

베스트셀러 베른하르트 모에슬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 강연



베른하르트 모에슬 작가.
사진출처=힌두스탄 타임즈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최근 한 강연에서 불교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공유했다.

2월 18일 인도의 영자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즈'(hindustantimes)에 따르면 작가 베른하르트 모에슬은 이날 인도 러크나우(Lucknow)에서 열린 저서 '소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Shaolin: How to win without fighting) 관련 강연에서 불교 교리와 수행에 대해 언급했다.

모에슬은 "요즘 사람들은 보다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며 "삶의 진정한 주인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기는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1970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모에슬은 13살 때 소림 쿵푸 수련을 시작하면서 소림 불교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모에슬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16살 때 세계 일주를 시작했다. 여행사진작가가 되기위한 출발이었다. 그러다 그는 1996년 중국 소림사에서 승려들과 함께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당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책으로 펴내기로 다짐했다. 그 책이 바로 이번 저서 '소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이다.

모에슬은 "불교 수행의 요점은 삶이 실제로 단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른바 '비전투 승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6차 정기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제16차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니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 불기2567(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오후 1시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
안 건 : 1. 2022년 결산보고의 건
2.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3. 전국비구니회 활동 전반에 대한 질의의 건
4. 기타 안건

불기2567(2023)년 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불교천문학 강좌

사찰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편법 사주명리, 육임 등등은 불교와 전혀 어울리지 않으므로, 따라서 불교 경전에 설파된 각종 천문관련 방편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평생운세, 매년운세, 단시판단법, 택일법, 기도성취법 등을 국내,외 최초로 스님, 법사님에게만 한정 '제6기 불교천문학 강좌'를 안내합니다.

불교천문학 특징
- 불교의 기본 핵심, 원리을 명확하게 알수 있음.
- 불교의 우주관을 이해하게 됨.
- 만사, 인사의 관계성을 이해하게 됨.
- 방편법으로 모든 동양학을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됨.

모집요강
- 개 강 : 3월 12일(일) 15시
- 교육 과정 : 주 1회 2시간씩 약 1년 과정
- 교육 장소 : 수원시 소재 수도사
- 교육 비용 : 약간 보시금
- 접수 문의 : 010-4317-9500(심원)

하늘 맘 알기 불교천문학 강원